

혈우병치료제 생산 돼지를 개발하다

- 과제명 : 혈우병치료제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돼지' 개발
- 담당 : 동물바이오공학과 김성우 031-290-1631

바이오신약 선진국으로 도약

혈우병은 평생 치료제가 필요한 유전 질환이다. 혈액 속에 정상적인 응고인자(Factor VIII)가 부족하여 생기는 질병으로, 상처가 나면 피가 굳지 않아 계속 흐른다. 혈우병 환자에게는 혈액에서 정제한 치료제가 처방되는데, 바이러스



혈우병치료제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돼지' 개발

감염의 위험성으로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며 따라서 혈우병 환자들은 동물세포에서 합성한 재조합 단백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세포배양 원천 기술과 특허를 선점했고 이는 치료제 가격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원은 사람 혈액응고인자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돼지의 유즙에서 치료제를 생산하는 형질전환 돼지를 개발했고, 이러한 국내 기술의 개발로 형질전환 동물 유래 혈우병치료제 개발의 문을 연 것이다. 치료제의 안정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국내 혈우병 환자께 값싸고 우수한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신약 수출의 꿈을 열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게 된다.